

“피지컬 AI 로봇으로 사업 확대 액추에이터 양산·공급 본격화”

LG전자 제24기 정기 주총

류재철 사장, 미래사업 방향 제시 액추에이터 직접 설계·생산 추진 데이터·학습 강화, 빅테크 협업 확대 B2B·플랫폼 육성 2030 성장 청사진 AX로 2~3년 내 생산성 30% 개선

“올해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로봇 액추에이터 양산 및 공급 사업을 본격화하겠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23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로봇 사업에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데이터와 학습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도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류 사장은 “로봇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구성품인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 생산해 전 세계 로봇 제조사에 공급하는 기업 간 거래(B2B) 부품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고도화된 가전용 모터 기술력과 연간 4500만 대 수준의 양산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로봇 타입에 최적화된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류 사장은 LG전자가 그간 쌓아온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의 공간을 연결하는 ‘솔루션 컴퍼니’로의 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를 활용한 홈 메뉴팩처링 및 스펙트럼 체인을 통해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고 제조 원가



류재철 LG전자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제24기 정기 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는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B2B 플랫폼, 다이렉트 투 에브리씽(D2X) 등 조직 육성 사업에 대한 집중도 강조했다.

류 사장은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등의 B2B 사업과 더불어 광고·콘텐츠·구독 및 온라인 채널을 기반으로 소비자 및 직접 대면하는 플랫폼 사업에 투자 재원을 집중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관련 투자 비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매출은 1.7배, 영업이익은 2.4배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 브라질 등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집중 육성해 해당 지역 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임직원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언급했다.

그는 “AX를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핵심 도구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해 2~3년 내에 생산성 30%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자기주식 소각,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보통주 기준 주당 배당금은 1350원으로 지난해 1000원 대비 약 35% 늘었다. 우선주는 1400원으로 전년 1050원보다 증가했다.

또 과거 사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 6442주(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는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정관은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사로는 류재철 CEO가 신규 선임됐고,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70억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80억원 대비 축소된 수준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 차량서 집 안 가전 제어

삼성 스마트싱스 연동 ‘카투홈’ 선보

현대차·기아와 삼성전자가 상호협력 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차량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생활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 제공되던 홈투카에 이어 카투홈을 새롭게 내놓으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홈투카서비스는 사용자가 스마트싱스 앱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공조·시동·문 잠금 및 해제·전기차 충전 시작·중지 등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현대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서비스 이용 고객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스마트싱스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해 계정을 연동하는 것으로 손쉽게 카투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투홈 서비스는 단순히 원격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 외출 순간부터 이동 중, 귀가 이후까지 생활 동선을 따라 이어지는 사용자 경험 전반을 끊임

없이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외출 시에는 자동으로 불필요한 가전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귀가 시에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을 작동시키는 등 운전자의 이동 상황에 맞춰 집 내부 환경을 최적화하거나 개인화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판매 차량 중인 cn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현대차·기아 차량에서 순차적인 OTA(Over-The-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업데이트 가능 모델은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향후 ccIC27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된 제네시스 차종까지 지속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단순한 원격 제어 기능을 넘어 차량과 집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첫 단계”라며 “모빌리티를 스마트 홈의 허브로 확장해 앞으로 더 많은 기기를 연결하고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앞두고 전격 회동

전영현 부회장과 1시간30분 면담

노사간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과의 전격 회동이 이뤄지며 교섭 재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강경 투쟁으로 치닫던 노사 갈등이 일단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 이날 오전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과 약 1시간 30분가량 미팅을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당초 노조가 예고했던 이재용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측이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기자회견 일정을 돌연 취소하고 대화에 응했다.

노조 측은 “전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측 역시 교섭 재개 의지를 밝히며

다만 교섭 재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와 성과급 지급 기준의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요구를 포함해 교섭 테이블에서는 논의하지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영현 부회장도 DS부문 내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섭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5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투쟁본부는 다음 달 집회를 이어가며 성과급 정상화와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속도 조절’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차현정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

큐브위성 AI실증 추진

스페이스린텍·연세대와 협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0일 우주 의학 전문기업 스페이스린텍과 ‘큐브위성 인공지능(AI)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KAI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AI 모듈을 스페이스린텍과 연세대가 공동 개발 중인 큐브위성 플랫폼에 탑재해, 우주 궤도상에서 위성의 이상 상태를 자율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양사는 올해 하반기 해당 AI 모듈을 탑재한 큐브위성을 발사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은 AI 온보드 프로세싱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상국에서 고장 신호를 위성으로 송신하면 AI 모듈이 이를 감지해 고장 원인과 범위를 예측하고, 최적 대응책을 도출해 기술 보고서를 생성한 뒤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위성이 지상 개입 없이 스스로 이상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완전 자율 운영 위성’ 구현을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삼성, 에어드롭식 파일공유 확장

갤S26부터 퀵쉐어 호환 범위 확대 타 기기·OS 연동 연결성 경쟁 강화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가 애플의 근거리 파일 공유 서비스 ‘에어드롭(AirDrop)’과 연동되는 기능을 지원한다. 그동안 갤럭시 기기 중심으로 제한됐던 파일 공유를 외부 플랫폼으로 확장하며, 모바일 생태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를 시작으로 파일 공유 기능의 호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퀵쉐어(Quick Share)’를 통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일부 PC 간 전송에 한정됐지만, 향후 다양한 운영체제(OS)와 기기 간 파일 전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진행 중이다.

퀵쉐어는 근거리 무선 통신을 활용해 사진·영상·문서 등을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으로, 애플의 에어드롭과 유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다만 에어드롭이 애플 기기 간 폐쇄적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개방형 전략을 통해 사용자 접근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에 갤럭시 S26 시리즈가 전열되어 있다. /뉴시스

이번 기능 확대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속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드웨어 성능만으로 차별화가 어려워지면서 파일 공유와 같은 일상 기능에서도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려 생태계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삼성전자는 앞서 구글과 협력해 퀵쉐어 기능을 안드로이드 기반 표준에 가깝게 통합해왔으며, 향후 타 제조사 기기와의 연동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갤럭시 중심 생태계’에서 ‘개방형 연결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생태계 전략 차이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jija_tea@

암바렐라와 AI 영상분석 기술 협력

한화비전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와 손잡고 차세대 영상보안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비전은 지난 20일 암바렐라와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사는 차세대 시스템온칩(SoC)을 비롯해 AI 영상보안 기술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비전의 첨단 영상 처리 기술과 암바렐라의 인공지능(AI) 역량이 결

합되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AI 영상보안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2004년 설립된 암바렐라는 보안 카메라와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에 쓰이는 AI 처리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핵심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CVflow’는 AI 영상분석 분야에서 단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비전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AI 기술의 적용 범위를 영상보안 이외의 분야까지 확장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